기다리는 왕

사무엘상I 16:14–23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 드리자면, 제 이름은 빈(Vinh)이고, 저는 윌링던 교회의 목회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다윗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왕족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나요? 중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미술 수업에서 다운타운에 있는 아트 갤러리로 견학을 가게 되었는데. 길을 건너려던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들이 나타나 교통을 통제하고, 저희들도 멈춰 세웠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표지판도 없었고,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길 건너 저 멀리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셨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제 입이 떡 벌어졌죠.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군주입니다.

그분의 주목을 받고 싶었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할까도 생각했지만, 대신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왕님이 답해 주셨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었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긴 왕조의 계보를 따라 태어난 분입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조지 5세 왕이었고, 고증조할머니는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이전 세대들의 유산 위에 세워진 것이죠. 오늘날의 찰스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 왕과 다윗 왕도 갑자기 어디선가 툭 튀어나온 인물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참되고 더 나은 왕에게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1. **사울 왕의 몰락**
2. **다윗 왕의 등장**
3. **참되고 더 나은 왕**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점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지만 창세기를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 두 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더하십니다.

창세기 17장 4–7절
4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1)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15–16절
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2)사라라 하라
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단순히 '집'이나 '미래 세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 속에는 지도자, 통치자, 그리고 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왕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왕을 받게 될까요?

이제 제 첫 번째 요점으로 가보겠습니다.

1. 사울 왕의 몰락

레이 목사님께서 다윗 시리즈를 소개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던 이스라엘 백성은 점차 주변 문화를 바라보며 그들과 같아지고 싶어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민족들은 모두 사람이 세운 왕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잊은 채,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기, 특정한 상황에 따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사들, 예컨대 기드온과 삼손 같은 이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교통 신호등을 따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윌링던과 모스크롭이 만나는 교차로에 가면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찰관이 직접 나와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면, 누가 더 큰 권위가 있을까요? 정답은 경찰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경찰관보다 신호

등을 따르려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보다 인간 왕을 더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일은 사무엘을 너무도 슬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더 깊은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4-7절

4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6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받아들이는 일로 사울 왕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자, 구별되고 거룩한 민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통치에는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유는 창세기 25장에서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결정은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예언을 통해 더욱 확고해집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0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참된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울 왕의 통치를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지만 자녀가 아직 어리면, 그 유산은 집행자 또는 신탁 관리인이 잠시 맡아서 관리하게 됩니다. 진짜 상속자가 장성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통치도 그런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통치는 조건부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8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 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단순한 명령을 줍니다. 길갈로 가서 7일을 기다리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 왕의 통치는 순종이라는 조건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야말로 사울의 왕위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가치였죠. 그리고 이 명령이 주어지기 바로 직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성령이 사울 위에 임합니다. 그는 단지 왕으로서 통치할 능력만 받은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순종할 능력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것 아닐까요?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14절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방금 읽은 것처럼,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희생'을 '순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사울이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다시 보면 22절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이제 백성 앞에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즉위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는가?"라고 묻자, 하나님은 그가 짐 사이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울은 그 순간과 주목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해서 숨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겸손함이 있었죠. 하지만 왕위는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12절에 이르렀을 땐,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후회"는 '슬픔'에 가까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계속 불순종하는 것을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울의 겸손했던 시절은 이제 옛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르면, 사무엘은 사울을 향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더 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레이 목사님도 이 부분을 언급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곧바로 "해로운 영"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14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서 '해로운'이라는 단어는 악한, 고통스러운, 비참함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라는 표현은 수동태로 사용된 것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악을 보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이 사울에게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도 주권을 가지십니다.)
사울의 통치 동안, 성령은 계속 사울에게 명령을 주셨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불순종했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이 원하던 대로 내버려두셨습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성품도 망가진다!"라고 제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결국 부모님도 어느 순간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불순종이 결국 파괴를 초래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울에게서 그의 영을 거두시고, 사울이 원하던 불순종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에 이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백성들이 외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7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때부터 사울의 질투심이 점점 깊어지고, 그 질투를 통해 해로운 영이 사울을 더 심하게 괴롭히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마음속에 살인의 생각까지 들어올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영국의 앨런 레드패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대중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 자기 탐닉에 빠지면 인격은 파괴되고, 자기 절제를 하면 인격은 세워진다."

사울이 사적인 자리에서 했던 선택들이 결국 공적인 자리에서 그를 드러냈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사울은 왕위를 잘 마무리하고 다윗에게 잘 넘겨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 다윗 왕의 등장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고작 10세에서 15세 사이였으며,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로부터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곧장 다시 아버지의 양을 치러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왕위를 당장 요구하지 않았고, 약 1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일부러 그 기회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처음 연결된 계기는, 사울의 신하들이 왕이 고통받을 때 그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수금(기타와 비슷한 악기)을 연주할 사람을 찾게 되면서입니다. 한 신하가 딱 맞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하며, 다윗의 여섯 가지 특징을 말해줍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18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저는 이 여섯 가지를 마지막부터 첫 번째까지 빠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다윗이 양치기 소년으로 소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에 대해 신하들이 무엇을 주목했는지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15절로 다시 가보면, 신하들은 사울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해로운 영을 알아차렸고, 동시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용모가 준수하다'고 소개되는데, 이는 외적인 모습이나 카리스마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말이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담습니다. 이런 평가는 10대 청소년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가 대부분의 시간을 양들과 이야기하며 보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아니면 양들과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는 말을 아끼고 더 의미 있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자'로 불리는데, 아직 전쟁에 나간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몇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용기 있고,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으며,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을 읽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또한 용맹한 자입니다. 다윗은 용기와 담대함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34~36절에서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를 죽였다는 고백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수금을 능숙하게 연주할 줄 압니다. 이는 그가 양을 돌보면서 혼자서 자주 연주했던 악기입니다.

저는 이 중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 왕이 마음이 상쾌해지고, 회복되며, 해로운 영이 떠나게 되는 걸까?"

수금은 예배의 도구로 사용되던 악기였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주님께 예배하는 곡을 작곡하고 수금을 연주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73편을 기록한 인물로 알려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했을 때, 그 음악은 사울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예배하도록 도왔습니다.

함께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1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 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 왕은 아주 작은 존재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지도 않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로 평가받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의 중대한 실수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자신의 마지막 말에서, 그는 자신이 시인으로 기억되길 원했습니다. 수금과 노래와 말과 삶으로 예배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3. 진실한 더 나은 왕

다윗이 예배했던 진정한 그리고 더 나은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며(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시고), 제사장이시며(우리를 위한 완전한 중보자이자 희생), 왕이시며(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언급된 모든 이름들과 비교하여 진정하고 더 나은 왕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우리는 주의 성령이 사울 왕에게서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그의 회개 부족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윗 왕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과 살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회개는 사무엘하 12장 13편과, 시편 32편과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왕 모두 죄를 지었고, 그들 각각은 진실한 더 나은 왕 앞에 섰습니다. 한 왕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진실한 더 나은 왕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다른 왕은 회개했고, 그래서 진실한 더 나은 왕은 그의 남은 생애 동안 그와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하신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주께서 친히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왕을 알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안전함과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 팀 체스터

엘리자베스 여왕과 같은 군주들은 그녀의 이름이 붙은 건물들이 있고, 그녀의 얼굴은 화폐에 인쇄되어 있으며, 그녀의 이름과 모습은 수많은 장소와 사물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유명한 이들은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군주와도 다르십니다!
20세기 초 캐나다의 침례교 목사였던 제임스 앨런 프랜시스 박사는 *"한 사람의 외로운 생애"*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매우 잘 알려져 있으며, 오늘 이 시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름 없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부 여인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작은 마을에서 자라면서,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그는 떠돌며 복음을 전한 설교자였습니다.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았고,
공직에 오른 적도 없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거나 집을 가진 적도 없었고,
대학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큰 도시에 가본 적도 없으며,
태어난 곳에서 200마일 이상 벗어난 적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에게 기대되는 일들을
그는 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자격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는 33세였을 때
세상의 여론이 그를 거슬러 돌아섰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도망쳤고,
그는 원수들에게 넘겨졌으며,
조롱하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렸고,
죽어가는 동안,
처형자들은 그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한 친구의 자비로 빌린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로부터 이천 년이 흘렀지만,
오늘날 그는 인류의 중심인물이 되었고,
인류의 진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터를 누빈 모든 군대,
바다를 항해한 모든 해군,
모여 앉은 모든 국회,
통치한 모든 왕들을 다 합쳐도,
이 땅 위 인간의 삶에 미친 영향은
그 단 한 사람의 삶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그 외로운 한 생애.

우리는 사울 왕에 대해 들었고 다윗 왕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겸손한 왕,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하시겠습니까?